

# 가족구조에 따른 자기보호아동과 성인보호아동의 학교적응 및 자의식 정서

## An Analysis of Adaptation and Self-Consciousness between Supervised and Unsupervised Children

한양대학교 아동심리치료학과  
교 수 이 정 숙  
박사과정 김 은 경

Department of Child Psychotherapy, Hanyang University

*Professor : Jung Sook Lee*

*Doctoral Candidate : Eun Kyung Kim*

###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Given the evolving nature of the family unit, a large number of children are being left unsupervised after schoo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adaptation ability and emotional capacity of these children. To achieve this objective, we investigated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708 middle-school students in Seoul, dividing them into two categories adult-care children, for whom adults provide care after school, and self-care children for whom no adult supervision was present. In particular, we examined children's adaptation to the school environment and possible self-consciousness difference between self-care and adult-care children, in consideration of their family characteristic; divorced, separated, widowed parent, remarried parents, ordinary families. The results showed that self-care children tend to have a higher rate of shame-proneness and guilt-proneness compared to adult-care children. Furthermore, self-care children exhibited lower school adaptation rate than adult-care childre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choolmate relationships between the two groups. In relation to specific family structures, children from reorganized familie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school adaptation and self-conscious, while self-care children from ordinary families revealed low school adaptation and high self-conscious characteristic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critical in the effective analysis and understanding of children's adaptive and emotional behaviors arising from changes in their family structure.

**주제어(Key Words)** : 자기보호아동(self-care children), 학교적응(school adjustment), 자의식정서(self-conscious affect), 가족구조(family structure)

## I. 서론

오늘날 많은 아동들이 귀가 후 어머니 등 어른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혼자 지낸다. 이처럼 학령기 아동이 방과후 집에 돌아갔을 때 부모나 성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보다 더 어린 아동을 돌보는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아동을 자기보호아동(self-care children) 혹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아동(children in self-care)이라고 말한다(Rodman, Pratto, & Nelson, 1985). 자기보호아동은 스스로 열쇠로 문을 열고서 집에 들어간다고 하여 열쇠아동(latchkey child)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실제 현황을 보면 적지 않은 수의 아동이 자기보호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14세 이하의 나이에 일시적이 아닌 일상적인 상황에서 방과후 시간을 혼자 보내는 아동이 1997년에 전체 아동의 약 47%로 보고된 바 있다(Smith, 2002). 우리나라의 경우도 방과후 아동보육실태를 조사한 여성특별위원회(2000)의 보고에 따르면 초등학교 아동의 어머니 취업률은 40%가 넘어서며, 보건복지부의 정책연구자료(2002)에 의하면 10.1%의 초등학교생들이 방과후 혼자 지낸다. 그런데 여기에 형이나 동생과 지내는 경우인 21.5%를 더하면 결국 방과후 시간을 책임지는 성인의 보호 및 지도 없이 혼자서 또는 다른 형제와 같이 지내는 자기보호아동의 비율은 전체 아동의 31.6%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아동의 방과후 자기보호는, 보호자의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양육소홀을 의미하는 방임과는 엄격히 다른 것이지만, 자기보호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방임처럼 자기보호 역시 많은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Colwell, Pettit, Meece, Bates, & Dodge, 2001; Kerrebrock & Lewit, 1999; Peterson, 1989; Petit, Laird, Bates, & Dodge, 1997; Vandel & Posner, 1999). 집에 돌아와서 상당 시간을 성인의 도움 없이 혼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동이 충분한 훈육과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각종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형제가 있는 경우는 형제갈등을 증대할 사람이 없어 충돌이 빈번해진다는 것이다(Jones, 1987). 또 자기보호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더 많은 사고와 상해를 경험하고(Kerrebrock & Lewit, 1999; Peterson, 1989), 더 높은 수준의 외현적인 행동 문제(Colwell *et al.*, 2001; Vandel & Posner, 1999)를 보이며, 사회적 능력과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Petit *et al.*, 1997)으로 나타났다. 또 자기보호상황의 청소년은 흡연과 음주, 약물남용 정도에서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유의하게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Mott, Crowe, Richardson, & Flay, 1999; Mulhall, Stone, & Stone, 1996), 오선영과 최정미(2004)에 의하면 방

과후 시설보호아동과 성인보호아동은 자아유능감 수준이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에 자기보호아동은 낮게 나타났다. 자기보호아동의 자아존중감이나 자아유능감 수준은 다른 많은 연구에서도 대체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오은숙, 2000; 장영은, 1998; Halpern, 1992).

이처럼 자기보호 아동이 사회적 능력이나 정서적인 면에서 낮은 적응 수준을 보인다는 주장과는 달리, 자기보호아동이 자아존중감과 내외통제성, 사회적 능력, 학업성적에 있어서 성인보호아동과 비교해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Gold & Andreas, 1978)도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자기보호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학자들도 있었는데(Rodman, Pratto, & Nelson, 1985), 이들은 자기보호가 책임감과 독립성, 자기방어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제까지 이루어진 자기보호아동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학교생활과 사회적 적응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자기보호 아동은 성인보호아동에 비해 학교생활 적응도와 사회적 능력이 낮으며 더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거나(Galambos & Garbarino, 1985) 약물을 더 많이 복용하는 경향을 보인다(Richardson, *et al.*, 1989)는 것이다. 최경순과 정현희(1996)는 중류층의 자기보호아동에 비해 저소득층 자기보호 아동이 유연성이나 지도력 같은 사회적 능력이 낮고 공격성은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하면서, 자신을 보호해줄 성인이 부재한 채 지내는 자기보호 상황 때문에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이 어렵고, 그로인한 욕구불만 때문에 공격적인 행동이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하였다. Vandall과 Ramanan(1991)은 자기보호아동이 높은 산만함을 보였다고 하면서, 부모의 부재시간이 길어질수록 아동은 집에 애착을 느끼지 못하여 밖으로 배회하는 등 정서적으로 산만해진다고 하였다.

그런데 자기보호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처럼 외적인 적응 차원에서의 연구와 더불어 주목해야 할 것은 아동의 심리내적인 정서이다. 자기보호와 성인보호가 아동의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 주로 다루어진 부분은 혼자 남겨지는 상황에서 기인한 외로움과 불안, 우울감 등이며(장영은, 1998; Dichtel, 1986; Gabarino, 1981; Long & Long, 1982; Long & Long, 1983; Zill, 1983), 보다 더 깊게 숨겨진 무의식적인 정서이며 내면적인 자기판단에 관련되는 자의식 정서(Harder, 1995)인 수치심, 죄책감과 관련된 연구는 부진한 편이다.

수치심 죄책감이라는 정서는 스스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또한 타인과 관계에서 경험되는 자기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Tangney, 2002). 이러한 수치심과 죄책감에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수치심은 우울, 섭식장애, 알콜중독, 자살 등 여러

심리적인 문제에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Andrews, Qian, & Valentine, 2002; Dearing, Stuewig, & Tangney, 2005; Ghatavi, Nilcolson, MacDonald, Osher, & Levitt, 2002; Sanftner, Barlow, Marschall, & Tangney, 1995) 심리적 학대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매개하는 것(전철은, 2002; Street & Arias, 2001)으로 밝혀진 반면에 죄책감은 적응적인 기능을 하며 보다 덜 고통스러운 정서라는 점이 강조되는 추세이다(전철은, 2002; Dearing *et al.*, 2005). 이러한 수치심 및 죄책감에 대한 연구는 자기보호아동의 자기 인식과 타인과 관계에서 경험되는 자기에 대한 느낌이나 인식을 알아보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수치심과 죄책감은 결과적인 성공과 실패 여부를 판단하는 일차평가만이 아니라 사건의 원인까지 판단하는 이차평가의 결과로 나타나며, 이러한 이차평가의 결과 그 상황을 외적 요인에 의한 것이냐 통제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할 때 느끼는 정서라고 볼 때(Fergusson & Rule, 1983; Graham & Weiner, 1986), 통제되기 어려운 환경적인 결핍과 제약은 아동의 수치심과 죄책감을 높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자기보호 상황은 아동의 수치심을 높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Lutwak와 Ferrari(1997)는 부모의 무관심한 양육 태도가 수치심 경향성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고, Lewis(1971) 역시 사랑과 보살핌을 충분히 제공해야 할 주요인물로부터의 거부경험이 수치심을 유발하는 전형적인 경험임을 강조했다. 이렇게 볼 때 방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방과후 보호감독의 부재인 자기보호(Jones, 1987)는 수치심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많은 연구들이 자기보호가 아동을 더 빨리 성숙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Capizzano *et al.*, 2000; Hofferth *et al.*, 2000; Smith, 2000), 가성숙한 역할수행이 수치심과 관계를 갖는다는 Cleary(1992)의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자신의 행동과 안녕을 스스로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자기보호 아동은(Collins, Harris, & Susman, 1995; Eccles, 1999) 그렇지 않은 성인보호아동에 비해서 더 높은 수준의 수치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Richardson, *et al.* (1989)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자기보호아동은 알콜이나 약물을 사용하는 경향이 성인보호 아동의 두 배에 이르며, 성적인 문제에 연루될 가능성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심 요인이 알콜이나 약물사용, 성적인 문제에 연루되는 등의 사건비율과 높은 상관을 가진다는 기존 연구결과(김민정, 1997; Cook, 1991; Merritt, 1997)를 고려해볼 때 성적사건이나 약물사용 비율이 높은 자기보호아동이 높은 수치심을 나타낼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수치감은 부모가 자녀의 거울역할을 적절하게 해주지 못

할 때 일어나며(Andrews, 1995; Gilbert & McGuire, 1998), 그럴 때 아이는 중요한 타인에 의해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 자신이 결핍된 존재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수치감을 발달시키게 된다(Glickauf-Hughes & Wells, 1997). 이렇게 볼 때 거울역할을 할 부모가 방과후 오랜 시간 부재한 자기보호 아동의 경우,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끼는 수치감이 증가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연구가 주로 자기보호아동의 외로움이나 따분함, 불안과 공포 등 자기보호가 아동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데 치중했다면(Long & Long, 1982) 이번 연구에서는 자기보호와 성인보호가 보다 무의식적인 정서로 분류되는(Harder, 1995) 수치심과 죄책감의 정도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많은 연구들이 자기보호아동의 사회적, 정서적 취약성에 대해 연구하면서 여기에 작용하는 다른 변수들이 있다는 견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가정 스트레스 상황, 구조적인 변화 등에 따라 자기보호 상황이 갖는 부정적인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재연과 강성희(1996)는 가족구성원의 죽음이나 이사,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재결합 등 생활에서 겪은 스트레스 사건이 자기보호아동의 불안이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Lovko와 Ullman(1989)도 자기보호 자체가 곧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일방적인 가정은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최경순과 정현희(1996)의 연구에 의하면 정서적 불안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행동의 불안정은 중류층 자기보호아동보다 저소득층의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것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라는 요인이 아동의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준 것(신연식, 1990)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자기보호라는 상황적 요인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의 자기보호인가, 그리고 자기보호를 유발한 가정 환경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점이 자기보호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Vandell과 Ramanan(1991)의 연구에 의해서도 지지되는데, 일반적으로 자기보호아동은 성인이 보호하는 경우보다 학업 성적이 낮고 또래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이며 반사회적인 행동을 많이 보이나(Posner & Vandell, 1994; Vandell & Ramanan, 1991), 이들이 부모에게 받는 정서적 지지를 통제한 결과, 발달상의 부정적인 결과가 유의하게 감소되었다는 것이다(Vandell & Ramanan, 1991). 또한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 중 방과후 집에서 보호자인 한쪽 부모와 함께 있는 경우가 기관에서 보호를 받는 경우보다 적응에 있어서 오히려 더 부정적이었다는 결과들(Vandell & Corasanti, 1990; Vandell & Ramanan, 1991)은 부모없이 지내는 기간보다는 부모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가가 더 중

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보듯이 자기보호나 성인보호나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보호가 어떠한 가정 상황과 관련되어 일어났는가 하는 가정 환경적 조건도 중요하다. 따라서 가정 환경 상황을 환경적인 위기나 구조적 변화에 의한 자기보호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분류하여 각각의 경우에 자기보호아동과 성인보호아동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보호나 자기보호나 하는 보호 양식에 따른 아동의 학교적응 및 자의식 정서의 차이를 알아보고, 또 부모가 이혼, 별거, 재혼하거나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 구조적 재편성 가족 혹은 재조직화 가정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가족을 나누어서 각각의 경우에 자기보호아동과 성인보호아동의 학교적응과 자의식정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아동기 동안에 방과후 성인보호를 받지 못한 자기보호아동은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가? 둘째, 자기보호아동과 성인보호아동의 학교애착과 교우관계, 수치심과 죄책감에는 차이가 있는가? 셋째, 일반가정에 속한 아동의 자기보호와 성인보호 간에는 학교적응과 자의식정서에 차이가 있는가? 넷째, 구조적 변화를 경험한 구조적 재조직화 가정에서 성장한 아동이 자기보호 상태에 있었던 경우와 성인보호 상태에 있었던 경우, 각각은 학교적응과 자의식정서에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아동기 가족구조와 보호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기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망할 수 있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서울 시내 4개 학교에서 설문을 실시하였다. 전체 응답자는 773명이었으나 이중 한 문항이라도 답하지 않았거나 무작위로 응답하여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708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이들의 연령은 14세 미만이 270명(38.1%), 15세 390명(55.1%), 16세 이상은 48명(6.8%)으로 15세가 가장 많이 조사되었으며, 평균연령은 14.58세( $SD = .79$ )였다. 남학생은 371명(52.4%), 여학생은 337명(47.6%)으로 남자가 약간 더 많았다. 출생순위에서는 둘째 이상이 376명(53.1%)이었고 첫째가 285명(40.3%), 외동은 47명(6.6%)으로 조사되었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이 308명(43.5%)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이 296명(41.8%), 대학원 졸업 64명(9.0%), 중졸 이하 40명(5.6%)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을 보면 고졸이 400명

(56.5%)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 24.3명(34.3%), 중졸 이하가 46명(6.5%), 그리고 대학원졸업 이상이 1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 2. 연구 도구

#### 1) 가족상황

가족상황에 관련하여 일반가정과 구조적 재조직화 가정의 분류는 Fergusson과 Lynskey(1996)이 개발한 가족위험 목록 가운데에서 아버지나 어머니의 사망, 이혼이나 별거, 재혼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조적 재편성 가정 혹은 재조직화 가정으로 분류하였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일반가정으로 분류하였다.

#### 2) 보호상황

보호주체에 관련하여 자기보호아동과 성인보호아동의 분류에는 Rodman *et al.*(1985)이 사용한 자기보호 분류기준을 사용하였다. 여기에서는 '평소 내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와서 있을 때 누가 집에 같이 있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나보다 어린 동생이 있거나 아니면 아무도 없었다.' 라고 응답한 경우를 자기보호아동으로 분류하고,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거나 또는 그밖에 다른 어른이 있었다.' 라고 응답한 경우를 성인보호아동으로 분류한다.

#### 3) 학교적응

학교적응은 학교애착과 교우관계의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였다. 학교애착은 박현선(1998), 유윤희(1994)의 학교생활 관련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이은숙(2002)의 학교애착 검사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5점 척도로 구성된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 선생님과 학교에서의 학습경험을 의미있게 여기는 등 학교생활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교우관계는 유윤희(1994)의 연구에서 사용된 학교생활적응 검사도구 중 교우관계에 해당하는 8 문항을 사용하는데, 마찬가지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좋고 친구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긍정적인 교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얻은 cronbach's  $\alpha$  값은 학교애착은 .69였고, 교우관계는 .72였다.

#### 4) 자의식정서

자의식정서는 Harder와 Lewis(1987)가 개발한 척도인 PFQ-2(Personal Feelings Questionnaire-2)를 우리말로 번안한 심종운(1999)의 개인느낌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수치심 및 죄책감과 관련된 16문항의 정동적인 기술어를 제

시하고 그것을 경험한 빈도를 5점 척도상에서 평정하게 한 것으로, 수치심 관련 문항에는 '당황스러운 느낌', '웃음거리가 된 것 같은 기분' '유치한 느낌' 등이, 죄책감 관련 문항에는 '후회' '양심의 가책' 등이 포함되며, 대상이 청소년임을 감안하여 '자의식' 등 용어는 따로 쉬운 말로 풀이한 내용을 덧붙였다. 이 척도는 자신이나 자신의 전반적인 행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측정하려는 것으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자신의 행동을 부적절하게 느끼는 정도가 더 심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얻은 cronbach's  $\alpha$  값은 수치심 경향성이 .89로, 죄책감 경향성은 .70으로 나타났다.

### 3. 자료의 수집과 분석

본 연구를 위한 설문은 서울 소재 4개 중학교에서 담당교사에 의해 수업시간 중에 실시되었다. 사전에 연구자가 해당 교사에게 설문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고, 교사가 이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설문이 이루어졌으며, 전체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 정도였다.

자료의 분석과정에서는 먼저 문항간 신뢰도를 측정하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최대값과 최소값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또한 보호주체에 따른 학교적응과 자의식정서의 차이를 알아보고, 구조적 변화를 경험한 재조직화 가정과 일반가정에 속한 집단의 보호주체에 따른 학교적응과 자의식정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  $t$ -test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무성익한 반응을 보인 응답자는 통계처리에서 제외시켰으며, 분석에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가족구조와 보호상황

조사대상자의 가족구조와 보호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가정상황에 관해서 아버지나 어머니의 사망, 이혼이나 별거, 재혼에 해당하여 구조적 재조직화 가정으로 분류한 사례가 65명(9.2%)이었고, 이에 해당하지 않아서 일반 가정으로 분류한 경우가 643명(90.8%)으로 나타났다. 또 보호상황을 살펴본 결과, 평소 학교를 마치고 오면 집에 부모나 어른이 있었다고 답변한 성인보호의 경우가 382명(54.0%)이었고, 집에 아무도 없거나 또는 나보다 어린 동생만 있었다고 답변한 자기보호의 경우가 326명(46.0%)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가족구조와 보호상황은 <표 1>과 같고,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에 나와 있다.

### 2. 보호주체에 따른 학교적응과 자의식정서

보호주체에 따른 학교적응과 자의식정서의 차이를 보면 <표 3>과 같다. 보호주체에 따른 학교적응의 평균차이를 보면 교우관계의 경우는 성인보호아동은 14.48점, 자기보호아동은 14.13점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 = .113$ ). 학교애착의 경우를 보면 성인보호아동은 15.93점, 자기보호아동은 15.33점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서( $p < .05$ ), 자기보호보다 성인보호아동의 경우 학교애착이 더 높았다고 할 수 있다.

보호주체에 따른 자의식정서의 차이를 보면 수치심의 경우를 보면 성인보호아동은 21.60점, 자기보호아동은 23.70점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서( $p < .001$ ), 성인보호보다 자기보호아동이 더 높은 수준의 수치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죄책감의 경우, 성인보호아동은 13.74점, 자기보호아동은 14.93점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서( $p < .01$ ), 성인보호보다 자기보호아동이 더 높은 수준의 죄책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가족구조와 보호상황 (N = 708)

변수	구분	빈도	퍼센트
가족구조	재조직화 가정	65	9.2
	일반가정	643	90.8
보호상황	성인보호	382	54.0
	자기보호	326	46.0

<표 2>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

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교우관계	4.00	20.00	14.32	2.93
학교애착	5.00	24.00	15.66	3.36
수치심	10.00	52.00	22.57	8.09
죄책감	6.00	78.00	14.29	5.63

<표 3> 보호주체에 따른 학교적응과 자의식정서의 평균차이

	성인보호 (n = 382)	자기보호 (n = 326)	t
	M(SD)	M(SD)	
학교 적응			
교우관계	14.48(2.84)	14.13(3.02)	1.59
학교애착	15.93(3.27)	15.33(3.44)	2.37*
자의식 정서			
수치심	21.60(7.80)	23.70(8.30)	-3.47***
죄책감	13.74(5.12)	14.93(6.13)	-2.81**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4〉 일반가정 아동의 보호주체에 따른 학교적응과 자의식정서의 평균차이

	성인보호 (n = 356)	자기보호 (n = 287)	t
	M(SD)	M(SD)	
<b>학교 적응</b>			
교우관계	14.63(2.72)	14.15(3.03)	2.10*
학교애착	15.96(3.28)	15.31(3.44)	2.43*
<b>자의식 정서</b>			
수치심	21.19(7.62)	23.54(8.23)	-3.74***
죄책감	13.41(4.52)	14.93(6.21)	-3.59***

\* $p < .05$ . \*\*\* $p < .001$ .

### 3. 일반가정 아동의 보호주체에 따른 학교적응과 자의식정서

일반가정에 속한 집단의 보호주체에 따른 학교적응과 자의식정서의 평균차이를 보면 〈표 4〉와 같다. 먼저 보호주체에 따른 학교적응의 평균차이를 보면 교우관계의 경우, 성인보호아동은 14.63점, 자기보호아동은 14.15점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서( $p < .05$ ), 일반가정에 속한 집단의 경우 자기보호보다 성인보호 아동이 교우관계가 더 좋았다고 할 수 있다. 학교애착의 경우를 보면 성인보호아동은 15.96점, 자기보호아동은 15.31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서( $p < .05$ ), 일반가정에 속한 집단의 경우 자기보호보다 성인보호인 아동이 학교애착이 더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가정에 속한 집단의 보호주체에 따른 자의식정서의 평균 차이를 보면 수치심의 경우, 성인보호아동은 21.19점, 자기보호아동은 23.54점으로 자기보호가 성인보호보다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p < .001$ ) 일반가정에 속한 집단은 성인보호보다 자기보호아동이 더 높은 수준의 수치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죄책감의 경우, 성인보호 13.41점, 자기보호 14.93점으로 자기보호가 성인보호보다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p < .001$ ), 일반가정에 속한 집단의 경우 성인보호보다 자기보호아동이 더 높은 수준의 죄책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구조적 재조직화 가정 아동의 보호주체에 따른 학교적응과 자의식정서

구조적 변화를 경험한 재조직화 가정에 속한 집단의 보호주체에 따른 학교적응과 자의식정서의 차이를 보면 〈표 5〉와 같다. 먼저 구조적 재조직화 가정에 속한 집단의 보호주체에 따른 학교적응의 평균차이를 보면 교우관계의 경우, 성인보호아동은 12.46점, 자기보호아동은 13.97점으로 자기보호가 성인보호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 = .071$ ). 학교애착의 경우, 성인보호아동은

〈표 5〉 구조적 재조직화 가정 아동의 보호주체에 따른 학교적응과 자의식정서의 평균차이

	성인보호 (n = 26)	자기보호 (n = 39)	t
	M(SD)	M(SD)	
<b>학교 적응</b>			
교우관계	12.46(3.72)	13.97(2.91)	-1.84
학교애착	15.58(3.15)	15.51(3.47)	.08
<b>자의식 정서</b>			
수치심	27.19(8.18)	24.92(8.77)	1.05
죄책감	18.35(9.30)	14.97(5.52)	1.83

15.58점, 자기보호아동은 15.51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 = .940$ ).

구조적 재조직화 가정에 속한 집단의 보호주체에 따른 자의식정서의 평균차이를 보면 수치심의 경우, 성인보호아동은 27.19점, 자기보호아동은 24.92점으로 성인보호가 자기보호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 = .298$ ). 죄책감의 경우, 성인보호아동은 18.35점, 자기보호아동은 14.97점으로 성인보호가 자기보호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 = .071$ ).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의 자기보호와 성인보호가 학교적응 및 자의식정서에 미치는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사회적 변화 속에서 나아가고 있는 자기보호아동의 적응과 정서를 이해하고자 했다. 이에 먼저 조사대상자의 아동기 보호상황을 조사하였는데, 평소 학교를 마치고 오면 집에 부모나 어른이 있었다고 답변한 성인보호의 경우가 54%였고, 나보다 어린 동생만 있었거나 혹은 아무도 없었다는 자기보호의 경우가 46%로, 성인보호가 약간 더 많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지역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371명을 대상으로 자기보호아동이 53.4%, 성인보호아동이 46.6%로 나왔다고 한 서은주(2006)의 결과와 비슷하다. 또한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 취업률이 40%가 넘어서는 여성특별위원회의 보고(2000)와, 방과후 어른의 지도없이 지내는 자기보호아동의 비율을 전체 아동의 31.6%라고 추산한 보건복지부의 정책연구자료(2002)와도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보면 현재 방과후 성인의 보호나 감독없이 지내는 자기보호아동은 열명 중에서 대략 4명으로 추산할 수

있으며, 실효성 있는 방과후 아동보호 대책이 실시되지 않으면 맞벌이 부부의 증가나 한부모 가족 등 가족형태의 변화 속에서 이러한 자기보호아동의 비율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보호주체에 따라서 학교적응과 자의식정서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결과적으로 성인보호아동이나 자기보호아동이나 하는 것은 교우관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데 비해서 학교애착과 수치심, 죄책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서, 자기보호아동의 경우 성인보호아동보다 낮은 학교애착을 보이는 반면에 수치심과 죄책감에서는 더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호주체에 따라 교우관계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데 비해서 학교애착이나 수치심, 죄책감을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친구관계에 관련해서 보호주체에 따른 차이가 없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친구에 대한 관심의 정도와 긍정적인 교우관계를 유지하는 정도에 있어서 자기보호아동과 성인보호아동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의미이다. 이전의 연구를 보면 자기보호아동이 사회적 관계와 또래관계에 있어서 주도성이 부족하고 소외감을 많이 느낀다는(김명숙과 정영숙, 1997; Long & Long, 1983; Petit *et al.*, 1997) 보고가 있었던 한편, 자기보호아동이 또래관계나 대인관계에서 다른 아동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연구결과(Rodman *et al.*, 1985; Steinberg, 1986; Vandell & Corasaniti, 1988)도 있었다. 또한 Vandell과 Corasaniti(1988)는 농촌 중류층의 자기보호아동은 지역의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들보다 사회적 기술이 더 높다고 보고하고 있어서, 아동이 또래관계를 잘 형성하고 거기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데에 있어서 성인보호나 자기보호나 하는 상황만으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자기보호 외의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자기보호아동의 경우 성인보호아동보다 낮은 학교애착을 보여서, 자기보호아동이 성인보호아동에 비해서 학교선생님을 좋아하거나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정도, 학교에 다니는 것을 의미있게 여기는 정도, 학교 생활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정도에서 더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호주체에 따른 사회성 발달을 연구한 옥경희, 김미혜, 천희영(2001)의 연구에서도 자기보호아동은 성인보호아동보다 학교생활 적응, 교사와의 관계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고, 자기보호아동이 반사회적인 행동이나 약물 복용에서 더 높은 빈도를 보였다는 보고가 있었다(Galambos & Garbarino, 1985; Richardson, *et al.*, 1989).

이처럼 자기보호아동이 학교적응이나 학교애착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것은 방과후 부모의 부재에서 기인한 기본적

인 애착 형성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으며, 혹은 적절한 방과후 지도나 과제물 준비 등이 미미하여 학교 적응에 뒤처지는 것이 원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자기보호아동은 방과후 시간에 학교 적응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거나, 학교에서의 경험에 관련하여 적절한 지도를 받거나, 학업이나 과제수행을 위한 도움을 받는 데 있어서 성인보호아동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자의식 정서에 관련해서 자기보호아동은 성인보호아동보다 더 높은 수준의 수치심, 죄책감을 보였다. 부모의 무관심한 양육태도가 수치심 경향성과 관련이 있다고 밝힌 Lutwak와 Ferrari(1997)의 연구결과나, 사랑과 보살핌을 충분히 제공해야 할 주요 인물로부터의 거부경험이 수치심을 유발하는 전형적인 경험이라고 했던 Lewis(1971)의 주장, 그리고 방임이 수치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정숙, 김은경, 2005) 등을 고려할 때, 자기보호아동이 성인보호아동에 비해서 더 높은 수치심을 나타냈다는 것은 자기보호가 방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Jones, 1987) 볼 수 있다.

한편 수치심과 정신 병리와의 관계가 분명해지는데 비해 죄책감은 수치심과 구별되어 여러 병리적 반응과 관계가 없거나 적다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Dearing *et al.*, 2005; O'Connor *et al.*, 1999; Tangney & Fischer, 1995), 이 연구에서는 자기보호는 성인보호에 비해서 수치심과 죄책감에서 모두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기존 연구에서 높은 수치심과 죄책감은 우울과 정적상관이 있으며 심리적 증상들과도 관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던 점(Harder, 1995; Harder & Lewis, 1987)을 고려하면, 자기보호아동이 성인보호아동보다 더 높은 수준의 수치심 죄책감을 보였다는 것은 지속적인 자기보호 상황이 만성인 우울을 유발하거나 행동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 자기보호아동이 성인보호아동의 두 배에 이르는 알콜 및 약물 사용을 보이며, 성적인 문제에 연루될 가능성도 더 높다는 연구가 나온 바 있다(Richardson, *et al.*, 1989).

셋째, 일반가정의 경우에 자기보호아동과 성인보호아동의 학교적응과 자의식정서를 살펴보면 보호주체에 따라서 학교적응과 자의식정서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학교적응을 보면 자기보호아동이 학교애착이나 교우관계의 수준에 있어서 성인보호의 경우보다 더 낮게 나타났고, 자의식정서는 자기보호아동이 수치심과 죄책감 경향에 있어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일반적인 보호주체에 따른 학교적응과 자의식정서의 차이에서 학교 애착과 수치심, 죄책감의 세 요인이 유의

미한 평균차를 보인 데 비해서, 일반가정으로 분류한 집단인 이혼이나 별거, 사망이 없었던 가정의 자녀는 교우관계까지 포함한 모든 하위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런 점에서 가정이 이혼이나 재혼, 별거, 사망 등의 구조적인 변화가 없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우에는, 가정에서 방과후 보호하고 지지해주는 성인이 없는 자기보호의 경우에 아동은 상대적으로 학교에 더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자기의식 또한 보다 더 부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보호주체를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인 자기보호아동의 사회적 적응이나 또래관계를 다룬 이전의 연구결과들 즉, 자기보호가 아동의 사회적 적응이나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김명숙, 정영숙, 1997; Galambos & Garbarino, 1985) 자기보호아동은 정서적 우울하고 불안, 공포,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낀다(장영은, 1998; Long & Long, 1982)는 이전의 결과들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자기보호가 심리적 증상들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수치심과 죄책감(Friedman, 1999; Harder, 1995)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자기보호아동은 상대적으로 불편한 심리적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보호할 성인이 부재한 동안 정서적인 욕구 및 실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보호형태에 따른 아동의 적응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보호나 성인보호나 하는 보호요인 외에 특정 가정상황이 갖는 상황 요인이 자기보호아동의 학교적응 및 자의식정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에서, 구조적 변화를 경험한 재조직화 가정에 속한 집단의 보호주체에 따른 학교적응과 자의식정서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재조직화된 가정 자녀의 경우 성인보호든 자기보호든 간에 학교적응이나 자의식정서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정과는 달리 재조직화 가정의 경우 자기보호와 성인보호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찾아보면, 재조직화 가정으로 분류된 아버지나 어머니의 사망, 이혼이나 별거, 재혼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족구조의 변화와 그로 인한 높은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이나 자의식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보호주체라는 요인은 그리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정에 구조적인 변화가 없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반가정의 경우, 방과후에 자녀를 보호하고 지지해주는 성인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아동의 학교 적응과 자의식에 있어서의 차이를 가져오는 데 비해서,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재혼, 사망이라는 구조적인 재조직 가정의 경우는 가정상황 요인이 갖는 영향이 커서 성인보호나 자기보호나 하는 요인은 더 이상 유의미한 차이를 갖지 못했다고 분석해볼 수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자기보호아동의 낮은 학업 성과와 부정적인 또래관계가 부모에게 받는 정서적 지지를 통제한 후에는 사라졌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Vandell & Ramanan, 1991), 한부모 가정 자녀의 경우, 성인보호보다는 기관의 보호를 받는 편보다 또래관계나 사회적 행동면에서 더 긍정적이었다는 결과(Vandell & Corasanti, 1990; Vandell & Ramanan, 1991)도 있다. 이렇게 볼 때 구조적 변화를 경험한 재조직화된 가정 상황에서는 성인보호와 자기보호가 학교적응이나 자의식정서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가정상황이 불안정하고 가정 내의 성인이 안정된 상황에서 적절한 지지를 주지 못할 경우, 성인의 보호가 아동의 자기인식정서나 학교 적응에 긍정적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환경 자체가 갖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경우에는 성인보호가 갖는 상대적 긍정적 기능이나 자기보호가 갖는 상대적인 부정적인 기능이 의미를 갖지 못하며, 이때는 성인보호나 자기보호라는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정의 구조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아동의 성인보호가 학교적응이나 자기 인식에 더 긍정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이때는 방과후 성인보호에 의해 아동을 돕기보다는 당면한 가족구조적인 문제가 주는 파장을 줄이거나 부모가 아닌 기관의 보호를 주선하는 등 아동이 그 부정적 영향에 덜 노출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에서는 자기보호아동과 성인보호아동의 학교적응 및 자의식정서의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사회적 변화 속에서 늘어가고 있는 자기보호아동의 적응과 정서를 이해하고자 했다. Elkind(1981)는 발달적으로 자기보호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많은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아동들의 모습을 “쫓기는 아이들 증후군(the hurried child syndrome)”이라고 명명했는데, 아동의 이러한 자기보호 상황은 사회적인 변화속에서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기보호의 영향을 이해하는 것을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이번 연구에서는 자기보호아동의 학교적응과 자기인식을 알아봄으로써 아동의 외적 적응과 내적인 역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으며, 가정상황의 특수성을 연구에 반영하여 환경적인 조건이 자기보호아동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데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제 이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번 연구에서는 가정형태에 따른 자기보호와 성인보호를 연구하였으나 여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또 다른 요인인 사회 경제적인 면이나 가정 내적인 상황, 주거지역이나 생활 환경상의 문제 등은 반영하지 않았는데, 추후의 연구에서는 가정이나 지역의 환경의 영향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로, 이번 연구에서는 보호주체와 가정환경 각각에 해당하는 사례수가 불균형하여 상호작용 효과를 볼 수 없었는데, 여기에는 구조적 재조직화 가정에 대한 분류기준이 제한적이었다는 점도 한 가지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자기보호나 성인보호나 하는 요인과 재조직화 가정이나 일반가정이나 하는 요인 간에는 각각이 갖는 효과 외에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조적 재편성 가정의 영역을 역기능 가정 전반으로 재분류해서 보호주체에 따른 재조직화 가정, 일반가정 아동의 적응에 대해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로 자기보호로 분류한 중에는 자기보호라기보다는 방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Jones, 1987; Rodman & Cole, 1987), 자기보호나 방임이나 하는 것은 자립을 위한 아동의 조건이나 혼자 남겨져있는 시간이나 상황, 자기보호를 위한 사전 준비와 비상시의 지원방법들의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을 것이지만 아직 그 분명한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방임과 자기보호의 경계를 찾아 양자를 구분함으로써 방임을 배제하거나 혹은 방임과 자기보호를 이차원적으로 분류하여 세분화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연구자들간에 아버지나 어머니의 사망, 이혼이나 별거, 재혼에 해당하는 가정에 대한 명명의 일치가 필요할 것이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사망, 이혼이나 별거, 재혼에 해당하는 가정을 일컬어 기존 연구에서는 결혼가정이라는, 최근 연구에서는 특수가정, 비전통적 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연구에서는 양쪽부모가 있는 재혼가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한부모가정 대신에 구조적 재조직화 가정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가족구조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그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다양한 가족구조를 총칭하는 용어에 대한 공통적 합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자기보호아동의 적응과 자기의 식정서를 연구했는데, 잘 계획된 환경 속에서의 자기보호에서는 자존감이나 자기방어력, 책임감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연구도 있는 만큼(Rodman & Cole, 1987), 자기보호아동이 처할 수 있는 취약성을 보완적으로 연구하여 긍정적인 발달가능성을 최대화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자기보호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최선을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겠다.

■ 참고문헌

김명숙, 정영숙(1997). 방과후 자기보호와 성인보호아동의

적응. **한국영유아보육학**, 9, 183-196.

김민정(1997). 여대생의 아동기 성학대 피해 경험과 심리사회적 손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현선(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 적응 유연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보건복지부(2002). **방과후보육 활성화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서은주(2006). 방과후 보호형태에 따른 아동의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아동교육**, 15(4), 287-296.

신연식(1990). **어린이의 이해와 지도**. 서울: 학문사.

심종온(1999). 수치심 경향성, 죄책감 경향성 및 사건귀인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여성특별위원회(2000). **방과 후 아동보육실태분석과 종합대책수립을 위한 연구**. 여성특별위원회.

오선영, 최정미(2004). 취업모의 양육태도, 자녀의 방과 후 보호형태와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3(5), 711-721.

오은숙(2000). 자기보호아동의 문제행동 개선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옥경희, 김미혜, 천희영(2001). 저소득층 아동의 학업, 정서 및 사회성 발달. **아동학회지**, 22(2), 91-111.

유윤희(1994). 학교적응, 불안, 학업 성취간의 관계 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 옥(2003). 초등학생 방과 후 보육 활성화 방안 연구. **사회과학연구**, 9, 99-117.

이은숙(2002). 청소년의 소외감, 우울과 자살생각에 관한 구조모형.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재연, 강성희(1996). 자기보호아동의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6, 1-21.

이정숙, 김은경(2007). 청소년의 학대경험이 수치심과 부모화에 미치는 영향. **상담 및 심리치료**, 19(2), 339-356.

장영은(1998). 방과후 보호형태에 따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심리적 복지감과 취업모의 양육부담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전철은(2002). 심리적 피학대 여성의 수치심, 죄책감 및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최경순, 정현희(1996). 저소득층 취업모 자기보호아동의 사회적 능력, 또래관계 및 정서발달. **아동학회지**, 17(2), 107-119.

Andrews, B.(1995). Bodily shame as a mediator between abusive experiences and depression.

-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4, 277-285.
- Andrews, B., Qian, M., & Valentine, J. D.(2002). Predicting depressive symptoms with a new measure of shame: The Experience of Shame Scale.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1(1), 29-42.
- Capizzano, J., Tout, K., & Adams, G.(2000). Child Care Arrangements for School-Age Children with Employed Mothers.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Assessing the New Federalism. Occasional Paper No. 41.
- Cleary, M. J.(1992). Shame and Shame-based syndromes: Implications for Health Education. *Health Values*, 16(6), 47-54.
- Collins, W. A., Harris, M. L., & Susman, A.(1995). Parenting during middle childhood.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Children and parenting* (Vol. 1. pp. 65-89). Mahwah, NJ: Erlbaum.
- Colwell, M. J., Pettit, G. S., Meece, D., Bates, J. E., & Dodge, K. A.(2001). Cumulative Risk and Continuity in Non-parental Care from Infancy to Early Adolescence. *Merrill-Palmer Quarterly*, 47(2), 207-234.
- Cook, D. R.(1991). Shame, attachment, and addictions: Implications for family therapist. *Contemporary Family Therapy*, 13(5), 405-419.
- Dearing, R. L., Stuewig, J., & Tangney, J. P.(2005). On the importance of distinguishing shame from guilt: Relations to problematic alcohol and drug use. *Addictive behaviors*, 30(7), 1392-1404.
- Eccles, J. S.(1999). The development of children ages 6-14. *The Future of Children*, 9(2), 30-44.
- Elkind, D.(1981). *The hurried child: Growing up too fast too soon*. Reading, MA: Addison-Wesley.
- Fergusson, D. M., & Lynskey, M. T.(1996). Adolescent resiliency to family adversit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7(3), 281-292.
- Fergusson, T. J., & Rule, B. G.(1983). An attributional perspective on anger and aggression. In R. Geen & E. Donnerstein (Eds.), *Aggression: Theoretical and empirical reviews* (Vol. 1, pp.41-74). New York: Academic Press.
- Galambos, N. L., & Garbarino, J.(1985). Adjustment of unsupervised children in a rural setting.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46(2), 227-231.
- Garbarino, J.(1986). Can American families afford the luxury of childhood? *Child Welfare*, 65(2), 119-128.
- Ghatavi, K., Nicolson, R., MacDonald, C., Osher, S., & Levitt, A.(2002). Defining guilt in depression: A comparison of subjects with major depression, chronic medical illness and healthy control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68(2-3), 307-315.
- Gilbert, P., & McGuire, M.(1998). Shame, social roles and status: the psychobiological continuum from monkey to human. In P. Gilbert and B. Andrews(Eds.), *Shame: Interpersonal Behavior, Psychopathology and Culture* (pp. 99-12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lickauf-Hughes, C., & Wells, M.(1997). *Object relations therapy: An individualized and interactive approach to diagnosis and treatment*. New York: Jason Aronson.
- Gold, D., & Andres, D.(1978). Developmental comparisons between 10-year-old children with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 *Child Development*, 49(1), 75-84.
- Graham, S., & Weiner, G.(1986). From an attributional theory of emotion to developmental psychology: A roundtrip ticket? *Social Cognition*, 4, 152-179.
- Halpern, R.(1992). The role of after-school programs in the lives of inner city children: A study of the urban youth network. *Child Welfare*, 71(3), 215-230.
- Harder, D. W.(1995). Shame and guilt assessment, and relationships of shame and guilt proneness to psychopathology. In K. Fischer & J. P. Tangney (Eds.), *Shame, guilt, embarrassment and pride: Empirical studies of self-conscious emotions*. New York: Guilford.
- Harder, D. W., & Lewis, S. J.(1987). The assessment of shame and guilt. In J. N. Butcher & C. D. Spielberger (Eds.), *Advances in personality assessment* (Vol. 6, pp. 89-114).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Hofferth, S., Jankuniene, Z., & Brandon, P.(2000). Self-Care among School Age Children. Institute for

- Social Research Working Paper Series,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 Jones, M. A.(1987). *Parental Lack of Supervision: Nature and consequence of a major child neglect problem*. Washington DC,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 Kerrebrock, N., & Lewit, E. M.(1999). Children in self-care. *The Future of Children*, 9(2), 151-160.
- Lewis, H. B.(1971). *Shame and guilt in neurosi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Lewis, H. B.(1987). Introduction: shame-the "Sleeper" in psychopathology. In H. B. Lewis (Eds.), *The role of shame in symptom formation*. Hillsdal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Long, L., & Long, T. J.(1983). *The handbook for latchkey children and their parents*. New York: Arbor House.
- Long, T. J., & Long, L.(1982). Latchkey children: The child's view of self-care. Washington, DC: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n,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211 229.
- Lovko, A. M., & Ullman, D. G.(1989). Research on the adjustment of latchkey children: Role of background/demographic and latchkey situation variable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1), 16-24.
- Lutwak, N., & Ferrari, J. R.(1997). Understanding shame in adults: retrospective perceptions of parental-bonding during childhood.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5(10), 595-598.
- Merritt, P.(1997). Guilt and shame in recovering addicts. A personal account. *Journal of Psychosocial and Nurse Mental Health Services*, 35(7), 46-49.
- Mott, J. A., Crowe, P. A., Richardson, J., & Flay, B.(1999). After-school supervision and adolescent cigarette smoking: Contributions of the setting and intensity of after-school self-care.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22(1), 35-58.
- Mulhall, P. F., Stone, D., & Stone, B.(1996). Home alone: Is it a risk factor for middle school youth and drug use? *Journal of Drug Education*, 26(1), 39-48.
- O'Connor, L. E., Berry, J. W., & Weiss, J.(1999). Interpersonal guilt, shame, and Psychological problem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8(2), 181-203.
- Peterson, L.(1989). Latchkey children's preparation for self-care: Overestimated, underrehearsed and unsaf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1), 36-43.
- Pettit, G. S., Laird, R. D., Bates, J. E., & Dodge, K. A.(1997). Patterns of after-school care in middle childhood: Risk factors and developmental outcomes. *Merrill-Palmer Quarterly*, 43(3), 515-538.
- Posner, J. K., & Vandell, D. L.(1994). Low-Income Children's After-School Care: Are There Beneficial Effects of After-School Program?. *Child Development*, 65(2), 440-456.
- Richardson, J. L., Dwyer, K., McGuigan, K., Hansen, W. B., Dent, C., Johnson, C. A., et al.(1989). Substance use among eighth-grade students who take care of themselves after school. *Pediatrics* 84(3), 556-566.
- Rodman, H., & Cole, C.(1987). Latchkey children: A review of policy and resources. *Family Relations*, 36(1), 101-105.
- Rodman, H., Pratto, D. J., & Nelson, R. S.(1985). Child care arrangements and children's functioning: A comparison of self-care and adult-care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1, 413-418.
- Sanftner, J. L., Barlow, D. H., Marschall, D. E., & Tangney, J. P.(1995). The relation of shame and guilt to eating disorders symptomatolog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4(4), 315-324.
- Smith, K.(2000). Who's minding the kids? Child care arrangements: Fall 1995. In Current Population Reports, P70-70. Washington, DC: U.S. Census Bureau.
- Smith, K.(2002). Who's minding the kids? Child care arrangements: Spring 1997. In Current Population Reports, P70-86. Washington, D.C.: U.S. Census Bureau.
- Steinberg, L.(1986). Latchkey children and susceptibility to peer pressure: An ecologic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22(4), 433-439.
- Street, A. E., & Arias, I.(2001). Psychological abuse

-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battered women: Examining the roles of shame and guilt. *Violence and Victims*, 16(1), 65-78.
- Tangney, J. P.(1992). Situational determinants of shame and guild in young adulthood.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 199-206.
- Tangney, J. P., & Fischer, K. W.(1995). *Self-conscious emotions: the psychology of shame, guilt, embarrassment and pride*. New York: Guilford Press.
- Vandell, D. L., & Corasaniti, M. A.(1988). The relation between third graders' after school care and social, academic and emotion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59(4), 868-875.
- Vandell, D. L., & Corasaniti, M. A.(1990). Variations in early child care: Do they predict subsequent social, emotional, and cognitive difference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5(4), 555-572.
- Vandell, D. L., & Ramanan, J.(1991). Children of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Choices in after-school care and child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7(4), 637-643.
- Vandell, D. L., & Shumow, L.(1999). After-school child care programs. *Future of Children*, 9(3), 64-80.

---

(2007년 11월 22일 접수, 2008년 1월 14일 채택)